

아동상담자의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process of the child counselor's change

신현정*

안양과학대학 전임강사

Shin Hyunjung

Instructor of Anyang Technical Colleg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arch for counselor's change process and factors in Theraplay, and to explore how they are changed into experts. This study used a method of qualitative study to reveal a concrete context of child couns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apist or counselor subjects realized that therapy(counseling) was not focusing on activities, but on meanings. In the beginning, therapist subjects act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rather than according to the child's reactions and their own strategy. It was expressed into long and boring explanations, trials to flatter a child. Therapist subjects were often depressed because of their incompetence, they even did overpraise for the undistinguished behavior of children, but gradually they have changed into expert therapists through ceaseless interaction with Theraplay community, reflection, trial and practice.

Key Words : child counseling, counselor(therapist)'s change process, factors for counselor(therapist)'s change

I. 서론

상담은 자기와 환경에 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촉진시키고 미래의 목표 및 가치관을 확립함은 물론 명료화하도록 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다(Shertzer & Stone, 1980).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가 적절한 시간을 수반한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공동 작업이다. 이 때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상담자가 되는데 다양한 상담자 변인이 상담과정이나 상담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변인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도 많은 내담자들이 유능한 상담자들을 만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자변인은 상담자의 성(性), 연령 등 인구학적 배경과 상담자의 전문적 배경, 그리고 상담자의 인지, 성격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담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를 구분하여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언어적 차이를 분석한 이현아와 이수원(1997)에 의하면 숙련상담자는 초보상담자와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반응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있어 공감, 반영 및 의미탐색과 정보요구 반응을 초보상담자보다 많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숙련상담자는 초보상담자와는 달리 내담자의 심정을 단순히 공감, 반영해 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탐색을 통하여 내담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담자의 언어반응유형(사실기술적 또는 자기관여적)과 반응내용(긍정적 또는 부정적)은 상담의 과정변인(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내담자의 자기탐색 및 감정 표현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이장호, 1988). 한편,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초기단계의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홍수현과 최해림(2001)에 의하면 상담의 전반적 과정 및 궁극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단계의 상담협력관계 수준을 결정짓는데 상담자의

* Corresponding author: Shin Hyunjung, 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 안양과학대학 사회복지과
Tel: 031) 441-1431
E-mail: hjnew@paran.com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태불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았고, 상태불안은 낮았으며,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상태불안보다 직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상담과정과 매우 관련이 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담자 변인과 상담과정 및 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김영란·연문희, 2002; 박연수·이현림, 1999; 송인아·고재홍, 2001; 장재홍·권희경, 2002). 대체로 공통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듯이 상담에서 상담자 변인은 상담과정 및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지닌다. 즉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상담과정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담자들은 보다 성공적 상담을 수행하고자 전문적 수련과정을 거치는 등 숙련된 상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상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성인상담과 달리, 아동은 성인처럼 언어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김광웅·김화관, 2006) 아동상담에서는 놀이를 통한 심리치료가 많이 활용된다. 또한 아동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간과하지 못한다. 게다가 아동상담은 성인상담처럼 긴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아동상담영역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검증의 연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아동상담에 대한 집중된 관심과 효과검증의 긍정적 결과들은 상담자 변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아동상담에서도 상담자의 전문성과 치료적 관계 및 상담자 변인 관련 연구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박희현, 2005; 최명선 외, 2005; 최명선·김광웅, 2005). 이들의 연구에서는 아동상담자가 슈퍼비전 받은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내담아동은 치료적 협력관계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나타났으며 아동상담자의 공감적 관심과 정서적 공명을 높게 지닐수록 내담아동은 치료자에게 보다 더 치료적으로 협력적이었음을 보고한다. 더군다나 상담자의 의욕상실에 내담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상담자의 전문성이 상담성과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아동상담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렇지만 아동상담영역에서의 다양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심층적 접근은 상담연구와 실제의 연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담연구들(아동상담, 성인상담 모두)은 대개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담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는 양적 연구법이 지배적이다(김계현, 2004). 김계현(2004)은 많은 사람들이 질적 연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은 물론 양적 연구법을 몰라 질적 연구를 일종의 회피기제로 선택한 사람들 탓에 상담영역에서 질적 연구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성인상담연구가 그렇듯이 아동상담연구 역시 이러한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효과검증에서 다양한 변인에 대한 검증으로 이제 막 확대되고 있는 아동상담연구의 영역을 고려해 보면, 질적 연구는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상담영역에서 양적 연구는 짧은 역사성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과 실험을 바탕으로 상담자의 전문성 증진과 아동상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객관성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연구에서 과연 상담자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상담은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상호작용 현상을 중시하는 상담영역에서, 실제 상담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연구는 피상적이고 수치화된 결과로 나타나고 그것은 현장과의 괴리, 왜곡이라는 어려움을 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치화된 결과의 제시만으로는 상담자의 고충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상담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소리를 배제한 연구는 아동상담자가 겪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상담자의 내부적 소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을 연구자가 아닌 참여자, 즉 상담자 중심으로 옮김으로 현상의 생생함을 전달하려고 한다. 연구도구로서의 상담자가 아닌, 주체로서 상담자가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상담현장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변뇌하며 전문가로서 성장하여 가는지를 바탕으로 아동상담자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자의 내부적 소리를 반영한 변화는 상담과정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체험과 상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자적 관점을 심층적, 맥락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면밀하게 기술, 해석함으로써 상담자의 변화를 둘러싼 아동상담연구에 대한 생생한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아동상담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동상담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을 중시한다. 현상학은 인간과 세계 사이의 역동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세계 경험, 즉 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히고 드러내는 일을 표적으로 한다(이근호, 2007). 그러므로 현상학을 기반으로 삼는 질적 연구에서는 모든 종류의 개념화, 범주화, 대상화 이전에 전반성적으로 주어지는 원초적이고도 즉각적인 세계경험의 지칭인 체험(이근호, 2006)을 통해 앎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 역시 연구자의 체험과 다른 아동상담자들의 체험에 집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자신과 두 명의 아동상담자이다. 아동상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은 다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동상담방법은 접촉을 매개로 한 놀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를 치료하는 방법인 치료놀이(Theraplay)이다. 놀이를 통한 아동상담은 크게 지시적인(directive) 것과 비지시적인(non-directive)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치료놀이는 지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상호작용 중심의 접근이다(Guerny, 1984).

우선, 연구자는 상담자¹⁾로서 본인의 체험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소아정신과와 아동상담소에서 치료놀이를 하고 있는 치료놀이사 자격증 소지자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다른 치료놀이사의 상담회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연구자 자신의 사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하였다.

두 명의 참여자 중 한 명은 30대 초반의 상담자인 이치료사(가명)이다. 이치료사는 치료놀이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복지관, 소아정신과 등의 여러 기관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아 등 100명 이상의 다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놀이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다른 한 명은 50대 초반의 박치료사(가명)이다. 박치료사는 20여년간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해왔던 원장이었고 아동상담의 박사과정 코스를 밟고 있다. 박치료사 역시 여러 아동에게 치료놀이를 적용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와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박치료

사 역시 유치원에서 발달 및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에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수 십 사례 이상의 치료놀이를 경험해 오고 있었다. 박치료사는 치료놀이워크샵 강사로서 치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실제적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다.

질적 연구의 참여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적절성과 충분성(신경림, 2003)을 고려해 볼 때 이치료사와 박치료사는 미국 The Theraplay Institute와 한국치료놀이연구소에서 Booth, Lindaman, 성영혜 교수로부터 치료놀이 슈퍼비전을 받은 치료놀이 치료자로서 수백시간의 사례경험과 슈퍼비전, 임상발표, 워크샵 참여 등의 집중적 수련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변화과정을 초보 때부터 생생하게 겪어 온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역시 다년간 치료놀이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좌절과 고민을 통해 변화해 온 사람이다. 지금도 상담자로서의 변화는 진행 중이지만 변화의 끝을 규정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변화란 지소적인 과정의 연속선상에 존재할 것이다.

참여자는 연구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수년 동안 같이 수학한 동문이기도 했으며 치료놀이 수련과정을 같이 경험해 온 상담자들이었다. 그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듣고 답아낼 수 있었다. 반면에, 이미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연구자의 편견, 선입견, 그리고 공유된 상식이라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해야만 했다.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는 각각 이루어졌다. 우선 이치료사와의 심층면담은 2006년 12월 20일과 2007년 1월 17일에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모두 보이스레코더에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그것을 전사함으로써 이치료사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 이치료사는 자주 만날 수 있어 궁금한 내용을 수시로 물어볼 수 있었다. 박치료사와의 면담은 2007년 1월 26일에 이루어졌다. 면담은 박치료사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비구조화,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에믹(emic)한 내부자의 관점을 엿보고자 하였다. 역시 녹음된 내용은 전사되었고 후에 의문 나는 상황이나 부가적인 질문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전사한 내용을 여러 번 읽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담자 변화의 흐름과 하위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가 연구자 개인의 생각으로 전락하거나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오류를 최대한 막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이해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1) 아동상담현장에서는 상담자와 치료자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 자료분석 및 해석

코드체계는 에믹(emic)한 것과 에틱(etic)한 것이 있는데 대개의 연구자들은 초기에는 자로 그 자체의 범주들을 에믹한 기준으로 코딩하고 후기에는 연구자의 분석들에 입각한 에틱한 기준으로 코딩한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도 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에믹한 소리에 집중한 후 연구자의 분석들에 맞게 유목화하여 연구자의 소리로 에틱하게 다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Giorgi(1985)가 추천한 분석과정 및 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유목화되었다. 우선, 전반적 감각획득을 위해 연구자는 특별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텍스트를 완독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정 문제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료를 여러 차례 완독한 후 텍스트 전체를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요하고 의미있게 여겨지는 단위들을 찾아내는 의미단위 식별단계를 거쳤다. 이 단계에서는 박성희(2004)의 지적을 거울삼아, 연구자는 자료 스스로 드러내는 중요 요소와 의미를 매번 새로운 시간에서 보고 찾도록 노력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심리학적 해석단계를 거친다. 의미 있는 단위의 식별이 이루어지면 연구자의 반성적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최종 분석단계인 통합단계에 이르면 연구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미들을 종합하여 변형된 의미단위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심리적 통찰을 통합하여 심리학적 구조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박성희, 2004). 이러한 4가지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자는 상담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모습을 변화과정과 변화요인으로 나누고 각각 하위주제들로 유목화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이로써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연구자의 체험이 전체적인 의미연결 속에서 파악되고 다시 연구자의 눈으로 재구조화되는 질적 연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연구가 어느 정도 시행된 후 연구자는 참여자를 비롯한 다른 아동상담가들에게 연구자의 생각을 나누고 유목화된 잠정적 결과물들을 보여줌으로 삼각검증을 통한 타당화 작업을 거쳤다.

III. 연구결과

1. 변화과정

다음은 치료자 변화의 모습이다. 치료놀이 치료자들은 회기를 거듭하면서 아래와 같은 변화과정을 겪는다.

1) 장황한 설명

치료놀이는 ‘언어’보다는 ‘놀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상호작용 방법이다. 언어는 전달하는 화자의 능력이나 듣는 청자의 능력에 따라 화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다. 더더군다나 언어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언어는 자기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치료자는 아동에게 밀가루반죽을 보여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다음에 일어날 상황들을 설명한다. “이번엔 선생님이 이걸로 시계를 만들어 줄거야.” 그리고는 아동의 손목에 밀가루 뭍치를 두르고 동그란 밀가루를 덧붙여 손목시계를 만들어 준다. 아동은 가만히 있다. 시계에 이어 온 팔을 두르는 팔찌를 만들고 이어 아이의 손바닥을 밀가루반죽 뭍치에 찍게 한다. 활동 하는 중간 중간 “이번에는...”이라는 설명이 반드시 부가된다. 그리고 아동과 치료자는 거울을 향해 같이 앉는다. “이번에는 밀가루를 동글동글하게 말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워크를 하면 거울을 잘 보고 있다가 동그렇게 만들어진 밀가루를 던질거야. 밀가루 반죽이 튕겨져 나올 수도 어떤 거는 거울에 붙을 수도 있어” 아동은 물끄러미 거울 속의 치료자를 바라본다. (2005/11/24)

친절하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이에게 다 설명해준다. 그런데 놀이는 설명이 길어지는 시간만큼 ‘단절’된다. 어찌 보면 같이 노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방법을 설명하는 사람과도 같다. 밀가루 반죽을 던진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추측해서 알려주지만 정작 거울에 밀가루를 던지는 행위, 밀가루가 거울에 붙건 떨어지건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는 ‘아이가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한 것은 오히려 치료자가 아닐까? Sartre에 의하면, 불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자유의 의식이다(이기상 역, 1987). ‘밀가루반죽’으로 아이와 성공적으로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치료자 ‘자유’의 결단을 통해 불안은 일어난다. 그러한 불안이 치료자의 ‘장황한 설명’으로 표현된다. ‘기투’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므로 상황 속에서의 자기 자신 외에는 불안을 도출시킬 수도 없다. 상황 속에서 아이가 치료자의 ‘불안’을 의식하고 아이도 ‘불안’해질까봐 치료자는 또 ‘불안’해진다. 아이가 ‘눈치 챌까’하는 치료자의 불안은 어머니와 아이, 즉 ‘타인의 눈치를 보는’ 치료자의 상황과도, 접목된다.

2) 눈치

치료놀이에서는 대개 어머니가 치료자와 아동 간의 놀이실에서의 상호작용을 지켜본다. 어머니가 '일방경', 혹은 '카메라'를 통해 아동과 치료자의 상호작용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하는 일은 치료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치료놀이 하는 걸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어요. 스스로도 긴장 되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이 많이 신경 쓰였죠. 그런데 몇 분 정도 하다보면 아이와 내가 서로 몰입되어 어머니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2006/12/20)

'아동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긴장되고 불안한 가운데 그 모습을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치료자로 하여금 눈치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만다. 특히 아이가 치료자에게 저항을 보인다든가 치료자의 리드대로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눈치 보기'는 더욱 심화된다. 어머니 앞에서 치료자는 '눈치 보기'를 통해 치료자 자신이 '어머니'라는 타인에 의해 고정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Sartre의 지적처럼 '나는 그를 주체로서 파악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에게 되던져지며 고정되고(이기상역, 1987)'만다. 즉, 어머니가 치료자를 규정하고 있을 하나의 가능성에 치료자로서의 자신을 묶어 버림으로써 치료자가 전개할, 혹은 나타낼 다른 가능성들을 사장시켜 버리고 만다. '눈치 보기'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 박치료사도 처음에는 부모가 치료놀이 상황을 보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어서 치료놀이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달리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한편, 이치료사는 아동과 놀이를 통해 '몰입'하게 될 때 타인이 의식되지 않음을 토로한다. 타인이 자기를 규정할 가능성에서 벗어나려는 치료자의 노력이 '몰입'을 통해 확인되자 '눈치 보기'는 이제 더 이상 치료자를 숨아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역으로, '몰입'되지 못하는 순간에는 항상 타인의 반응에 의해 규정되는 것 같은, 타인에 의해 다른 가능성은 배제된 듯한, '눈치 보는' 치료자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치료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을 대할 때에 그러한 상황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내가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지가 뭘 안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연령이 저보다 높은 어머니들에

게 말할 때에는 확장도 좀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가끔 제가 말하면 "네 네" 대답은 하지만 진짜로 대답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머니들과 상담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2006/12/20)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 이치료사는 노력한다. 특히 자신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날이면 이치료사는 더욱 어른스러워 보이려 노력한다. 이치료사는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전문가다운 인상을 풍기지 못해서 또 질문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린다. '무지'하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부모를 대하는 치료자의 태도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그러한 치료자의 불안은 '공감적 연결'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염된다. 치료자의 '부자연스러움'이 어머니로 하여금 '믿음직함' 인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한 느낌이 또 치료자에게 전달된다. 급기야 치료자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런데 '눈치 보기'는 어머니에게만 국한되는 양상은 아니었다. 치료자는 상호작용하는 아이의 눈치도 보고 있었다. 치료놀이 초기에 연구자는 '치료자가 유도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와 갈등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이의 눈치를 봤다. 그러나 아이가 '퇴행'을 하고 '저항'을 보이는 시기가 되면 아이는 치료자의 의도대로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자 치료자는 당황한다. 얼굴은 애써 그렇지 않은 척 위장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애가 탄다. 갈등 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치료자는 또 아이의 눈치를 본다. 아이를 갈등으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 아이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비위를 맞추려 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치료자는 어머니의 눈치까지 보게 된다. 그러니 상호작용은 '몰입'되지 않는다.

불안은 치료자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불신'에서 기인한다. 다행히 치료자 스스로에 대한 '불신'은 Bollnow(1981)의 말을 빌어, 치료놀이에 대해 연습하고 노력함으로써 치료놀이와의 일치되는 '좋은 경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Bollnow(1981)에 따르면, 어떤 것과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객관화하는 지식을 목표로 삼는다고 보는 오히려 직접적인 자신의 능력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백승균 역, 1993). 그러므로 치료놀이 치료자는 어머니와 아동, 또 스스로에 대한 '눈치 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자신의 능력을 목표로 삼아 스스로 '불신'을 느끼지 않도록 치료놀이와 일치되려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가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된다.

3) 과도한 칭찬

일반적으로 '잘 한다'는 칭찬은 행위자로 하여금 그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 될 때 그것은 칭찬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다음은 위축된 아동과 함께 한 놀이 상황이다.

놀이실 중간으로 자리를 옮긴다. 놀이실 구석에 가지런히 쌓여 있는 방석 10개를 가져와 아동과 치료자의 중간에 둔다. 치료자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가져갈 것이라고 아이한테 설명한다. "가위바위보" 치료자가 리듬있게 큰 소리로 구령을 한다. 그러자 아동이 가위를 낸다. 치료자는 보를 내고, 아동이 이긴다. 아동은 가만히 있다. 치료자는 중간에 쌓여 있는 방석중 하나를 집어 아동을 일으킨 채 아동이 앉았던 자리에 그것을 놓고 다시 아이를 앉게 한다. "우와! 가위바위보 잘 하는걸" 아이가 또 이긴다. "와! 이거 네가 다 가져가겠다. 정말 잘하는 거야" 아이는 계속 이긴다. 그럴 때마다 치료자의 칭찬과 감탄이 쏟아진다. "내가 지겠다", "나는 방석이 하나도 없겠다", "잘하네" "우와!" 등등. 쌓여져있던 10개의 방석은 아이가 8개, 치료자가 2개를 가진 상태가 된다. 다음 가위바위보에서는 치료자가 이긴다. 치료자는 아동을 향해 "선생님 하나 주세요오"하고 애교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이는 일어나 하나를 준다. 가위바위보는 몇 차례 더 이어진다. 아이가 이길 때마다 치료자의 감탄사와 칭찬은 터져 나온다. 아이가 방석을 모두 갖게 된 상태에서 방석놀이는 끝이 난다. (2005/12/1)

아이의 '이김' 속에는 치료자의 계산이 숨겨져 있다. '가위바위보'를 하는 아이의 패턴을 읽으면 치료자는 '가위바위보'에서 쉽게 질 수 있다. 치료자는 아이가 누군가를 이겨보게 함으로 자신도 '할 수 있다'라는 성취를 맛보게 하고 싶어졌다. 칭찬과 격려는 치료자의 그러한 마음에 대한 반영이었다. 행위에 근거한 구체적인 칭찬은 아이에게 '약'이 된다. 그러나 행위보다 과도한 치료자의 격려는 아이에게는 부담이 된다. 너무 빈번한 칭찬은 '입에 발린 말'이 되고 만다. 남발되는 말 속에서 진심을 찾기란 더 어려운 법이다. 아이는 치료자의 칭찬에 눈을 아래로 향한다.

이치료사는 아이가 잘 할 때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어깨를 한 번 '톡' 쳐 준다든가 손을 한번 잡아 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격려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과도한 칭찬은 때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그것은 여태껏 그러한 경험에 익숙해 있지 않던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기는커녕 치료자에 대한 '이질감'만 심어준 셈이 될 수 있다.

4) 일희일비(一喜一悲)

Hume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고 말한다(Trigg, 1988). Hume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건 간에 그것이 항상 이성의 판단에 의한 것일 수는 없다. 치료자의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자의 경우에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압도당하기 쉬운 상황들이 있다. 치료놀이 상호작용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치료자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치료놀이를 하던 아이가 치료 중간에 종결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다.

치료 중간에 종결되는 경우에는 내가 부족했나하는 마음이 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특히 아이의 저항이 길어지고 별로 변화가 없고 유치하다고 엄마가 느끼면서 중단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때 엄마가 아이를 좀 더 지켜 볼 수 있게 아이를 위한 안내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참 무력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치료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치료를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거 같아요. (2006/12/20)

이치료사의 말대로, 부모의 기대만큼 아이에게 변화가 없다고 느끼거나 치료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치료놀이가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치료자는 자신이 '무능력'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놀이를 계속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더불어 우울과 소진(burn-out)을 느낀다. 반면에 아이가 좋아졌다는 부모의 보고는 치료자의 보람과 기쁨을 증가시킨다. 치료자는 부모의 반응과 외부적 상황에 따라 슬프기도 기쁘기도 하다. Lacan의 말대로, 이 때 '치료자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 된다. 치료자의 욕망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함으로 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치료자는 매일 매일의 치료 과정에서 일희(一喜)하고 일비(一悲)한다. 타자의 반응이 좋으면 '보람 있다'고 즐거워하고 반응이 나쁘면 '무능하다'고 좌절한다. 반복적인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치료자는 고민하고 갈등한다. 이치료사는 그러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을 슬며시 드러낸다. 치료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치료자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 둘 것이냐 하는 갈림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이와의 관계'이다. 치료자가 '아이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 보이는 아이의 지속적인 저항은 이치료사의 말대로 '치료자를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 때로 치료사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더 잘하는 전문가를 만났으면 아이가 즐겁게 놀이를 할텐데...'하는 생각에 시달리기도 한다. '내적 귀인'은 치료자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러나 만나게 되는 다양한 아이들은 치료자를 항상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게 만든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기에 치료자는 어떤 아이와 했던 '재미없는' 바로 그 놀이를 다른 아이들과는 '재미있게' 한다. 아이와 치료자 상호작용의 역동은 아이의 상황과 모습에 따라 언제나 다르다. 그러기에 치료자는 여전히 더 익은 치료자가 되기 위한 '일회일비(一喜一悲)'의 과정을 겪어 나간다.

5) 의미 확인: '활동 중심'보다 '의미 중심'

치료놀이에서는 '정형화된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료자와 아동은 신체를 이용한 접촉놀이를 주로 한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아이의 특성에 따라, 계획한 목표에 따라 미리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치료놀이 활동들을 준비해 간다. 활동이 없으면 아동과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은 치료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에 대한 치료놀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활동 하나 하나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한 활동은 그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날 계획한 것을 다 못하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정성껏 아이를 위해 치료자로서 준비한 활동들인데...아이의 반응이나 상호작용보다는 내가 뭔가를 아이한테 주는 거...거기에만 초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2007/1/17)

이치료사는 활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리고 치료자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활동 속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안다. 치료자가 준비한 활동들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상호작용은 이치료사의 말처럼 치료자가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이치료사는 '활동 중심'의 치료놀이를 하던 시절에 아이들이 '저항'을 보이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고 말한다. 이치료사의 말대로 아이들이 "내(치료자)가 준비한 활동을 아이들이 안하려 하니까" 활동은 원래의 치료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자는 힘이 들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박치료사도 처음에는 활동에만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아이의 반응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달라지는 변수들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순간순간 나타나는 아동의 욕구에 민감해질 수 있음"을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같은 활동 속에

서도 달라진 '지금-여기' 아동의 상황을 알아 가는 치료자로서의 '자신감'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같은 활동 속에 달라지는 의미들, Lacan이 말하듯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호 간의 상호 관계(차이의 구조)에 따라 늘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다(강영안 역, 1996). 달라지는 아이들의 상황은 같은 활동 속에서도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만든다. 그러므로 치료놀이 활동의 의미는 Lacan의 지적대로 '상호 관계에 의해 생산된 결과'이다. 처음에 치료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치료놀이 활동들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점차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아이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지, 아이는 그 활동을 통해 치료자에게 무슨 의미를 보이는지를 알아나가게 된다. 이렇게 '의미를 통한 상호교류'를 터득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치료자가 걸어야 하는 '득도(得道)의 길'이다.

6) 자기 방식 발견

저항이구나... 퇴행이구나...알아가는 거. 아이가 확장실을 가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이 놀이실에서의 저항인지... 정말 욕구인지... 알아내야 하죠.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도 없는, 조종인지 욕구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서 대처하는 게 정말 유능한 치료자인거 같아요. (2007/1/26)

박치료사는 '조종'과 '욕구'를 구별해 내어 반응해 주는 치료자의 능력을 높이 산다. 아이의 반응을 민감하게 해석하는 치료자이어야만 그러한 식별이 가능하다. 치료사는 그 '차이'를 알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시행착오'란 바로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민과 좌절이 있다. 다른 치료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더 나아지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치료자들은 '최적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려 한다. '내 방식을 찾아가는 일'은 치료자로서 성숙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며 치료자를 치료자답게 만드는 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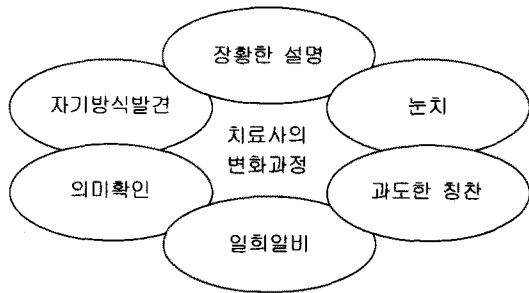
치료놀이 맥락 안에서 '내 방식을 찾아가는' 힘든 치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치료사를 통해 '보람'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발달장애아와 치료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건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눈맞춤이 전혀 안 되던 아이가 처음으로 한참동안 나와 눈맞춤이 되더라구요. 그때 속으로 얼마나 흥분되었는지...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와 치료놀이 할 때였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 의뢰된 아동과 치료놀이 세션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했었거든요. 그 세션이 모두 끝난 종결의 날, 치료놀이

를 한 후 아동을 교실로 데려다 줄 때였어요. 그 아동이 내가 안아 준 것보다 나를 더 꼬옥 안아주더라고요. 그 때 전율이랄까? 전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2006/12/20)

이치료사는 눈맞춤이 안 되던 아이가 눈맞춤을 할 때의 흥분, 아동의 감정 섞인 포옹으로부터 보람을 느낀다. 박치료사는 아이의 되찾은 해맑은 웃음, 아이가 어머니를 편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 치료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아이의 변화는 치료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도록 독려하는 촉진제가 된다.

이상에서 밝힌 치료사의 변화과정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치료사 변화과정의 양상

2. 치료자 변화요인

1) 공동체

Sartre의 말처럼 '매 순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서규 역, 2003)'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치료놀이 치료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치료자는 아동과 맞닥뜨리는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행위'를 한 치료자의 몫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치료자의 '책임'은 똑같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아마도 치료자에게 '책임'은 나눌수록 '감(減)'하여지는, 혹은 끈끈해지는 '동지의식'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동지의식'은 '공동체'를 통해 새 빛을 더 발한다.

연구자: 치료놀이를 하다가 모르는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치료사: 슈퍼비전이 많이 도움되죠. 또 저보다 경험 많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낫다'라고 대

답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지난 번 슈퍼바이저가 자신이 케이스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고백할 때... 저분 같으면 못할 거 없을 거 같았는데... 저분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2007/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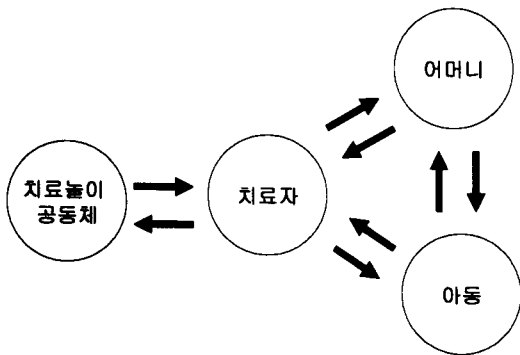
박치료사: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치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내 의견과 다른 선배 치료자들의 의견을 조합을 해서 활동을 먼저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받죠. 외국 사례를 보거나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죠. 토론도 유의한 거 같아요. (2007/1/26)

Jaspers에 따르면, '공동체' 속에 있는 인간의 소박하고 단순한 현존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일반 의식'과 자신의 '개개 의식'을 일치시킨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믿으며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한다 (백승균 역, 1993). 이치료사의 말에서도, 박치료사의 말에서도 치료놀이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칠 때 슈퍼비저나 선배, 동료들의 조언은 그 난관을 헤쳐 나올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같은 믿음과 생각과 행함을 가진 동지들에게 부족한 듯 느껴지는 자신의 능력을 털어 놓음으로 '동지들의 상황'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시켜 그들의 사고와 행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간혹 논쟁과 이견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공통의 견해'는 '동일한 매체' 속에서 생기고 '공통의 가치 평가'를 위한 것(백승균 역, 1993)이기 때문에 공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치료놀이 워크샵이나 토론의 장에서는 치료자들 사이, 혹은 치료자가 되려는 사람들 사이에 적잖은 이견들이 오고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견은 치료놀이의 '공통의 가치 평가'의 맥락 안에서 수용되고 또 도태된다. 수용되고 도태되는 치료놀이에 대한 생각들은 결국, 치료자의 성장과 치료놀이의 발전, 치료놀이 상호작용 주체들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 과정에서 치료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려 한다. 더 나은 치료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것은 '공통의 가치 평가 기준' 아래에서 가능할 수 있다. 현존하는 치료자로서의 자신을 무한한 '가능'으로 던지려는 시도를 통해서 치료자는 성장하려 한다. 이러한 치료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becoming together) 과정(조용환, 2001)'을 통해 그 속의 '개개 의식'과 '일반 의식'을 '일치'시키고 '분리'시키고 '통합'시키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항상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료자들은 아동, 그리고 어머니와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한

다. 각각의 치료자들이 치료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접하게 된 사례들의 난점들은 공동체라는 집단 속에서 함께 이해되고 공유된다. 거기서 힘을 얻은 치료자들은 또 다시 각각의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하는 현장 속으로 투입된다.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 과정' 속에는 어울려 나가려는 주체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현 사실에 치료자의 육체가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료놀이의 '정신'만큼은 항상 공존한다. 분리되어 따로 나아갔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재접근을 통해 공동체로 돌아와 힘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따로 나아가는 과정, 즉 그래서 치료자로서의 현재 자신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함께 어울려 나아가려는' 치료놀이 공동체인지도 모른다.

다음 [그림 2]는 치료놀이 공동체와 치료자, 어머니, 그리고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흐름을 가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치료놀이 상호작용의 흐름

[그림 2]에서 보면 어머니, 아동, 치료자는 서로 상호작용 한다. 그런데 치료자는 어머니와 아동과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공동체와도 상호작용한다. 공동체와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에 대한 이치료사의 말을 들어보자.

회기 안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부모와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일주일 후에 아이를 만날 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슈퍼바이저와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이와 상호작용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들고 돌아 다시 다른 모습으로... (2006/12/20)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자 자신의 '반성'과 '노력'이다.

2) 반성(反省)과 노력

치료자들 간의 생각, 믿음, 행위의 일치, 즉 공동체의 '일반 의식'을 '개개 의식'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생각, 믿음, 행위의 일치를 이루어 가는 과정도 치료놀이에 대한 의미를 공유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에서 언제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도 앎은 스스로 구성되지 않는다. 앎은 그것을 구성시키려고 하는 자발적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깨우치고자'하는 노력이다.

내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계속 돌려 보면서 '왜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 상황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2007/1/26)

박치료사를 비롯한 많은 치료자들은 이미 행한 치료놀이 세션을 그냥 흘려두지 않는다. 치료놀이 상호작용의 다음 세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치료자로서 아동에게 적절하게 반응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아동이 지난 세션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료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한다. 박치료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치료자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치료자 자기 모습에 대한 '관찰'이다. 자기 모습에 대한 관찰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反省的) 태도'를 갖게 한다. 치료자는 '객관적 자아'를 발동시켜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치료사는 아동의 반응을 감지하는 치료자의 판단에 따라 행위가 달라짐을 이야기한다. 즉 치료놀이의 전 과정 중에서 "현재 아이가 속해 있는 상황이 어디쯤인지 아는 것"이 아이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말만큼 쉽지 않은 치료놀이는 어떤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그 과정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맞게 반응한 것이었나'를 항상 생각해보게 된다고 이치료사는 고백한다.

아이의 욕구나 반응을 살펴 알아차린 후 적절히 상호작용하기 위해 치료자는 '판단'과 '선택'을 통해 '행위'로 '실천'한다. 그런데 행위로 실천한 판단과 선택은 대개 치료자에게는 반성적 계기를 제공한다. 즉 치료자의 '실천'에 대한 아동 반응, 치료자 스스로의 '자각'은 치료자로 하여금 '반성적'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반성적' 태도는 치료자에게 또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행위를 수반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관심 있으면 다 연관되어 보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치료놀이 활동으로 활용할 것들을 많이 찾아요. '아 저거도 치료놀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려 노력해요. 미국에서 활용하는 것을 실제로 아이들과 해보기도 하는데...어떨 때에는 문화적 측면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문화에 맞는 걸로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 연구하고 공부해요. (2006/12/20)

이치료사는 놀이실을 떠난 생활 세계에서도 치료놀이와 '공존'한다. "관심 있으면 다 연관되어 보인다"라는 말을 통해 이치료사의 치료놀이에 관한 태도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이치료사는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치료놀이 활동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놀이를 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생활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놀이상황에 적용할 활동들을 찾느라 일상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치료놀이 치료자들은 자신과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하게 된다. Drews와 Lipson에 따르면, 자신을 변형시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능력은 역동적이라고 한다. 덧붙여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향한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이재봉 외 역, 1994)고 강조한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으로 '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고들 하기 때문에 치료사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혹은 기존의 부족한 치료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이다. 은 인간의 이미지를 '초월적 존재'라고 여기는 Drews와 Lipson(이재봉 외 역, 1994)의 말을 거울 삼아, 치료사는 반성과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즉 더 좋은 어떤 것을 향한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성장하는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3) 경험

공동체의 '일반 의식'에 '개개 의식'을 접목시키고 그 바탕 위에 '자기 방식'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 치료사는 공동체 속에서도 자기 '색'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치료놀이 상호작용도 하게 된다. 치료사는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모든 아이들 각각에게 필요한 '실존적' 대상이 됨으로써 아이들과 각각의 주관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들 각자에 대한 치료사의 얼굴은 각각 다른 것'이 된다. 역으로 치료자마다 자기 다른 치료자만의 '색'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독특하게

만든다. 아동 각자의 다른 상황에서 '실존'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자기 '색'을 바탕으로 아이들 각자의 다른 상황에 맞춰 '주관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 각자가 처해 있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치료놀이의 '일반 의식'과 같은 '개개 의식'을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색'을 찾기로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기만의 '색'은 치료놀이 공동체 속에 용해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진정 치료놀이 치료자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색'을 찾아가면서 공동체의 '일반 의식'과 '개개 의식'을 추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행착오'는 '경험'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 Bollnow(1981)에 따르면, 경험은 개개 사건의 반복 속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치료놀이를 둘러싼 개개 사건의 반복과 그로 인한 시행착오는 경험을 구성한다.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은 곧 '앎'을 형성하며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험으로 인해 앎은 풍부해진다. Bollnow(1981)는 경험이란 언제나 다시 새로운 경험을 이룩하게 하고 내면적으로 동화하게 하는 생동적이면서도 부단히 발전하는 성장과정(백승균 역, 1993)이라고 한다.

예전에 특수학교에 가서 1년 정도 프로젝트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한 아이는 전혀 상호작용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거의 어떠한 놀이에도 상호작용다운 반응이 없었거든요. 물론 손타박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화분 받침을 가지고 하나를 쌓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도 그 위에 하나 쌓았죠. 그러자 아이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 위에 화분 받침을 놓더라고요.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죠. 양상은 다르지만 치료놀이가 통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죠. (2006/12/20)

이치료사는 치료놀이 활동에 거의 '무반응'으로 반응하던 아이와 '화분받침 쌓기'를 통해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시도한다. 아이는 치료자를 잠시 쳐다본다. 그리고는 치료자가 쌓은 것을 보고 순서를 기다리고 자신의 것을 쌓게 된다. 그것은 아동이 상호작용의 또 다른 주체가 되는 상대를 의식하는 순간이다. 이치료사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여, "치료놀이가 통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치료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아이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토대로 치료놀이 상호작용을 시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치료놀이를 통해 아이의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면 치료자도 점차 달라져간다. 경험은 치료자로서의 소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며 아동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갖게 한다. 또한 이것은 이치료사에게 치료놀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일이며 Bollnow(1981)의 표현대로, 경험 속에서 풍부해진 지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드는 일이 된다. Gehlen의 주장처럼 경험과 능력은 구별될 수 없는 것이다(백승균 역, 1993).

치료자가 '활동자체'에만 매달리다가 '활동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성장의 과정도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일방경' 뒤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비로소 치료놀이에서 '몰입'하게 되는 것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이 저항이나 퇴행을 보일 때 힘들어하기 보다는 아이가 나아지는 과정임을 증명하는 것 같아 그것을 오히려 고맙게 여긴다"라는 박치료사의 말 역시, 그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한 고백임을 틀림없다. 경험을 통해 치료자는 고민하고 좌절하며 깨우치고 보람을 느낀다.

경험은 그래서, 치료자의 성장과정이며 치료자의 능력이다. 경험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경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으로 인한 앓을 수정하고 재구성하고 풍부하게 할 개방적 여지를 경험은 충분히 남겨둔다. 그 개방성으로 인해 치료자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놀이를 중심으로, 아동상담자의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치료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 아동상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상담이란, 상호작용 과정이기에 내담자의 성장과 치료자의 성장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전문적 상담자를 원하는 내담자의 욕구는 치료자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상담자로서의 성장과 관련해서 치료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아동상담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예리한 용어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는 거르기 어려운 상담에 대한 인간 경험의 심층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아동상담에 대한 앓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자의 변화과정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행위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의 수준과 관련된다. 연구자가 '장황한 설명'을 하는 시기부터 '자기 방식 발견'의 시기까지 시간에 따른 치료자의 변화과정을 제시하였지만 이것이 일정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치료자의 변화과

정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시기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나타나는 각기 다른 자기 해석의 깊이만큼 드러날 수 있다. Klein(1932)의 '자리' 개념처럼 치료자는 그때, 혹은 지금, 타인과 상호작용 관계를 맺은 현재 자신의 상태만큼 자신을 위치 짓고 그 상황 속에서만 자신의 상호작용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즉 치료자의 변화과정 양상은 치료자 자신의 현상을 바라보는 주관적 해석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치료자의 변화과정 양상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장황한 설명'을 하는 상호작용의 해석상황에서 '의미 확인' 과정으로 치료자의 해석의 폭을 확장시켜 가면서 일어나는 모습인 것이다. 치료자의 해석은 점차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되고 그 변화는 치료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둘째, 변화요인은 치료자의 변화과정을 더욱 숙련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상담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험, 공동체, 치료자의 반성과 노력 등은 치료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을 풍요롭게 한다. 즉 변화요인은 치료자의 깨달음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준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오면서 상담효과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요인, 즉 상담관계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높음을 강조한다(박성희, 2000). 상담관계의 인격성과 수평적 상보성, 상담과 삶의 통일성 등의 상담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상담이 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박성희, 2000). 즉 상담가와 내담자의 평등한 관계, 삶과 상담이 분리되지 않는 상담자의 자세가 보다 긍정적인 상담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상담관계라는 치료적 협력관계는 어떻게 잘 형성될 수 있는가? 아동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슈퍼비전 받은 기간이 길고, 횡수가 많을수록, 내담아동은 치료적 협력관계를 더 높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개인분석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있는 치료자들에게 치료적 협력관계를 더 잘 형성할 수 있다(최명선 외, 2005). 상담자가 내담자와 서로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상담자가 상담을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며 변화해가는 인간적 존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등한 관계,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맥락으로 홍수현과 최해림(2001)의 연구에서도 내담자가 지각하는 협력관계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협력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고 성장하며 고민하는 존재이고 그러한 인간적 갈등과 노력은 긍정적 상담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

셋째, 치료자의 변화에 대한 통찰은 치료자의 소진을 막고 전문가로의 성장을 독려할 수 있다.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인간으로서의 상담자 자신이며 가장

강력한 기법은 활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과 현실을 직시하는 상담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상담자의 능력이 다(박희현, 2008). 그러므로 상담자의 역할과 개인적 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간정도의 우울증, 불안, 정서적 피로와 불안한 관계 등은 상담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상담자는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박희현, 2008). 특히 이러한 것들을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단정 지을 경우, 소진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상담자들의 변화과정은 그들이 겪는 고민과 성장의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 대상 개인의 심리세계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일반화된 진술과 구조속으로 통합해야 하는 심리학적 일반화가 질적 연구에서는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상담자들이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가는 일련의 모습임을 상담자 본인이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일 역시 요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상담현장에서 아동상담자들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통해 전문가가 되어가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치료자들이 겪는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심리학적 일반화와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상담방법의 하나인 치료놀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상담방법으로의 확대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상담자 내면의 소리를 생생히 드러냄으로 상담자들의 욕구와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력이 다각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상담자의 관점에 입각해 상담자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 상담자와 내담자의 변화는 서로 맞물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변화가 내담자의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역으로 내담자의 변화는 상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맥락적 과정, 역동적인 상호작용 현상을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상담을 포함한 상담연구 영역의 지평을 확장시킬 것이다.

주제어 : 아동상담, 아동상담자의 변화과정, 아동상담자의 변화요인

참 고 문 헌

- 강영안 역(1996). 주체는 죽었는가: 현대철학의 포스트모던 경향. 서울: 문예출판사.
- 김계현(2004). 상담심리학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광웅·김화란(2006). 놀이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처음 만나는 놀이치료.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 김수현·이장호(1988).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의 친애욕구가 상담의 과정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권, 5-24.
- 김영란·연문희(2002). 상담단계별 상담자 공감과 내담자 체험 및 상담성과와의 관계.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4권 1호, 19-38.
- 박성희(2000). 상담효과를 가져오는 상담관계의 특성. 초등교육연구, 14(1), 167-180.
- 박성희(2004). 상담학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박희현(2005). 아동상담가의 의욕상실(burn out)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현(2008). 내용분석을 통한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경험과 대처방식. 아동학회지, 29(1), 207-225.
- 송인아, 고재홍(2001). 상담내용과 상담자 유형에 따른 상담 효과의 차이.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3권 2호, 19-32.
- 신경림(2003).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12(1), 49-68.
- 이근호(2006). 현상학과 교육과정 재개념화 운동. 교육과정연구, 24(2), 1-25.
- 이근호(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서규 역(2003). 현대철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재봉·방영준·윤건영 역(1994). 가치와 존재.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현아, 이수원(1997).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숙련상담자와 초보상담자의 언어반응의 차이. 한국상담심리학회지, 9권 1호, 157-180.
- 장재홍, 권희경(2002).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4권 3호, 487-509.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갈등-상생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 최명선·김광웅(2005). 아동과 치료자간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7권 2호, 111-125.
- 최명선·김광웅·한현주(2005). 치료자의 전문적 경험과 공감능력이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 관계에 미치는

-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7권 3호, 503-521.
- 홍수현·최해림(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3권 1호, 31-49.
- Bollnow, O. F.(1981). *Philosophie der Erkenntnis*. Stuttgart: Kohlhammer. 백승균 역(1993). 인식의 해석학. 서울: 서광사.
- Giorgi, A.(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Shertzer, B., & Stone, S. C.(1980). *Fundamentals of counsel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Trigg, R.(1988). *Ideas of human nature*. Blackwell Publishers Limited. 최용철 역.(1996).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서울: 도서출판 자작나무.
- (2008. 8. 10 접수; 2009. 2. 6 채택)